



## 아주 특별한 중국집 '너와 나'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중국집 하면 흔히 '만리장성', '중국관' 등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중국집 '너와 나'가 바로 그런 곳. 번듯한 간판 하나 내걸지 않은 소박한 음식점이지만 어떤 일인지 점심시간 내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린다. 아마도 주방장의 손맛에 그 비결이 있지 않을까?

### 요셉위원의 자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점이 아니다. 많은 음식을 팔기 위한 호객 행위도 없고, 저렴한 원가를 위해 재료를 속이지도 않는다. 테이블 대여섯 개가 놓였을 뿐인 작은 공간이 '너와 나'의 전부지만 손님들에게 내놓는 음식만큼은 아주 특별하다.

"다른 중국집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무엇보다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점심을 해결하러 '너와 나'를 찾은 손님들의 말이다. 자장면 한 그릇에 3천원, 탕수육 1인분에 5천 원인데 맛 또한 호텔 중식당 부럽지 않다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음식맛에 감탄한다.

'너와 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진료소인 요셉위원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식당의 운영 역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중국집 '너와 나'에는 자장면, 짬뽕, 우동, 볶음밥, 탕수육 등 기본 메뉴 5가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배달 가능합니다.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넉넉한 인심이다.

이미 맛과 푸짐한 양으로 소문이 나서 배달 주문도 무척 많은데, 점심 시간 내내 가게가 통화중 일 때면 가끔 옆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자장면 하나, 짬뽕 하나”를 외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 주방장 김봉두 씨,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

이쯤해서 슬슬 이 맛을 내는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해지는데, 주방장은 바로 최근까지 요셉의원의 주방을 맡아온 김봉두 씨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인 생활을 전전하다가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원장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얼핏 보기에도 넉넉하고 사람 좋아보이는 인상을 풍기는 김봉두 주방장의 얼굴에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가 넘쳤다.

“어려서부터 난청이 있었어요. 무작정 상경해 중국집에 취직을 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오해를 사고, 순탄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착한 아내 만나 결혼도 했지만,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그가 마신 소주는 하루에 7병이 넘는다고. 술기운에 싸움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정말 ‘사람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과의 만남이다. 이후 술을 끊고 알콜중독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봉사를 시작했고, 급기야 ‘너와 나’의 주방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저보고 돈 안 벌어도 좋고, 술만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 활동하는 저를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몰라요.”

김봉두 씨와의 짧은 대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돈 한푼 벌지 못하는 봉사활동이지만 이 일을 시작한 후로는 사는 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는 김봉두 씨에게서 어찌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卍